“국민 마음 평안으로 사회 화합 이루길”

1면에서 이어짐

성파 대종사 “화합으로 불교 중흥”
“어려운 이웃 길잡이 역할” 기대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는 조계종 원로의장 자광 대종사가 대독한 법어를 통해 종도들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청정승가를 구현하고 화합을 바탕으로 불교 중흥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성파 스님은 “지난 4년 동안 종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종단 안정을 이루어 내었듯 종도들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청정승가를 구현하고 여법하게 화합해 불교 중흥의 길로 이끌어 간다면 그 공덕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종단을 구성하는 수승한 원력과 역량을 갖춘 대중들이 모두 깨달음을 성취하고 중생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정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설했다. 또 “오늘 복된 인연을 함께한 종도들은 종단이 가지고 있는 수승한 수행 풍토와 여법한 전통을 소중히 생각해 이사가 화합하고, 신심 있는 불자와 국민 모두가 존중하고 감동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해 오래도록 이 땅에 부처님 법륜이 구르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 취임을 축하하는 불교계 안팎의 축사도 이어졌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은 “오늘날 세대와 가치관의 변화, 인구구조의 변화, 종교에 대한 인식 변화 속에서 불교가 어떤 모습으로 국민에게 다가갈 것인지 깊이 성찰해야 한다”며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지난 임기 동안 쌓아온 경험과 원력을 바탕으로 종단 안팎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해 종단 미래를 향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를 대표해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은 “시대를 읽는 안목과 혜안을 지닌 진우 스님이 조계종단과 한국 불교계를 국민에게 신뢰받고, 희망을 안겨주는 등불과 같은 종교가 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길 바란다”며 “스님이 그간 보여준 담대하면서도 세심한 리더십은 불교계 내부 화합은 물론 사회 전반에 상생과 평화의 기운을 불어넣어 줄 것이라 믿는다”고 격려했다.

정원주 중앙신도회장도 불교의 사회적 역할의 지평이 더욱 넓어지고 승가와 재가가 서로 존중하는 종단이 되길 발원했다.

이웃종교계에서도 종교 간 교류 증진을 통한 화합과 상생의 가치 확산에 기대를 전했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대표회장 박인준 천도교 교령은 “종교 간 화합과 협력을 통해 사회 갈등을 치유하고 우리 사회에 희망을 전해주길 바란다. 천도교도 평화와 상생의 길에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정순택 천주교 서울대교구 대주교는 “조계종이 국민의 지친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지고 갈등 속에서는 화쟁의 정신으로 화합을 열며 어려운 이웃에게 든든한 벗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성환 청와대 경청통합수석이 대독한 축사에서 불교가 사회가 화합으로 나아가는 길잡이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마음을 다스리는 불교의 명상 전통과 아픔에 서로 공감하는 자비의 가르침은 마음의 평화를 잃은 현대인들에게 깊은 위로를 주고,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는 온기가 돼 줬다”며 “정부 역시 소외된 이웃을 더 따뜻하게 보듬고 모두가 화합해 새로운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불교계가 추진하는 문화유산의 보존과 K-불교문화의 세계화 노력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축하 인사에 앞서 종단 화합과 발전을 염원하는 종도들을 대표해 제3교구본사 신흥사 주지 지혜 스님과 이승현 조계사 신도총회장, 선민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장, 김유진 제주항공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정리해고 후 12년 만에 복직한 김승화 전 KTX 승무지부장이 진우 스님에게 축하 꽃을 전달했다.

끝으로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은 발원문을 통해 “국민의 평안을 지키는 한국불교는 국민의 마음 안보를 위해 오직 수행의 공덕으로 세상과 함께 호흡하며 모든 사람에게 지혜와 자비를 전하는 길을 넓혀 가겠다”며 “공의로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이끌며 공심으로 불교 중흥의 원동력이 되며 공감으로 세상과 함께할 것”을 기원했다.

김내영 기자

조계종 제19대 중앙종회의원 입후보 명단

교구	법명	현직
직할	본오(탄보)	조계사 부주지
	상원	제18대 중앙종회의원
	현민	호압사 주지
	탄하	청룡사 주지
	본연	현성정사 주지
	주경	제18대 중앙종회의원
	관태	호국지장사 총무
용주사	법진	백운사 주지
	현담	심복사 주지
	탄대	전통문화체험관 관장
	덕운	석남사 주지
	호진	조계사 호법국장
신흥사	대현	화암사 주지
	삼조	제18대 중앙종회의원
월정사	해량	제18대 중앙종회의원
	효림	전 삼화사 주지
	삼혜	법흥사 주지
법주사	석중	제18대 중앙종회의원
	각연	용화사 주지
	법원	소재사 주지
	현우	영국사 주지
	덕현	제18대 중앙종회의원
마곡사	제민	전 적석사 주지
	종봉	관촉사 주지
	대륜	쌍계사 주지
	태진	태고사 주지
수덕사	우봉	화계사 주지
	수암	영탑사 회주
수덕사	허정	전 불학연구소장
	정경	간월암 주지
직지사	자성	용문사 주지
	진웅	직지성보박물관장
동화사	선안	임휴사 주지
	명진	종립학교관리위원회 위원
	덕유	전 호법부 조사국장
	혜범	송림사 주지
은해사	세림	덕사 주지
	호암	인각사 주지
	선웅	선광사 주지
불국사	정수	불국사복지재단 상임이사
	성주	오어사 주지
	각천	전 불국사 호법국장
	성제	제18대 중앙종회의원
	심담	마하연 주지
해인사	일규	미륵사 주지
	종인	해인사 고불암 감원
	응기	보국사 주지
	향록	송학사 주지
쌍계사	능원	낙가사 회주
	각림	제18대 중앙종회의원
	현담	석왕사 주지
범어사	도명	여여정사 주지
	담산	전 총무원 총무국장
통도사	보화	월봉사 주지
	정무	용궁사 주지
	혜원	해남사 주지
고운사	태원	봉황사 한주
	도륜	대원사 주지
	혜오	보덕관음사 주지
	범종	관흥사 주지
금산사	덕림	관음사 주지
	창엄	죽림정사 주지
	응묵	영화사 주지
백양사	덕유	용흥사 주지
	성진	성관사 주지
	무선	전국선원수좌회 호법단장
화엄사	연규	향일암 주지
	우경	사성암 주지
송광사	시공	만경사 주지
	일화	제18대 중앙종회의원
대흥사	설도	백련사 주지
	향문	미황사 주지
관음사	도윤	관음사
	선화	제석사 주지
	자경	보현사 주지
	도성	법화사 주지
	월공	경흥사 한주
	향림	전 총무원 총무국장
선운사	동산	상원사 주지
	재안	내소사 주지
봉선사	보관	수국사 주지
	성우	봉선사 대중
직능	법성	신륵사 주지
	경암	제18대 중앙종회의원
	진화	증심사 주지
직능	서봉	불교중앙박물관장
	선지	죽림사 주지
	진각	표충사 주지
	법륜	묘적사 주지
	탄웅	적조사 주지
	진허	능가사 주지
	현무	직할 학도암 주지
	효명	혜원정사 회주
	성행	제18대 중앙종회의원
	법주	완도 신흥사 주지
	영일	정광고등학교 교장
	정범	제18대 중앙종회의원
	도림	장안사 주지
	무경	안심사 주지
	각진	봉은사 부주지
	향성	백담사 주지
	원충	화광선원 주지
	성화	장안사 주지
	탄원	보경사 주지
비구니	정관	소림사 주지
	진상	봉녕사 주지
	법해	진관사 주지
	설해	평창 부석사 주지
	은광	운문사 주지
	주석	대운사 주지
	금해	관음선원 주지
	혜능	금천구립사랑채요양원 관장
	서원	구미 대둔사 주지
	수경	휴휴정사 주지

천태종 제18대 종의회의장에 용구 스님

제133차 임시 종의회서 선출
26년도 추경예산 307억여 원



천태종 제18대 종의회의장에 용구 스님〈사진〉이 선출됐다.

천태종 종의회는 9월 18일 단양 구인사 삼보당에서 제133차 임시 종의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용구 스님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용구 스님의 임기는 제18대 종의회 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2029년 1월 초까지다.

신임 종의회의장 용구 스님은 1977년 대충 대종사를 은사로 출가, 1982년 득도했고 법계는 2급 종사를 수지했다. 총무원 교무부·사회부·규정부, 17~18대 종의회 의원, 19대 감사원장, 사찰 주지 등을 역임했다. 현재 전형위원, 상벌위원회 위원 등 주요 소임을 맡아 종단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날 종의회에서는 천태종 총무원을 비롯한 중앙종무기관과 학교법인 금강대 등 산하기관의 추가경정예산 일반예산이 307억166만1000원으로 확정됐다.

임은호 기자

태고종 영산재와 락이 만난다

10월 18일 광화문광장서 개최

태고종(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영산재의 가치를 알리고 전통문화와 현대 대중음악이 어우러지는 문화축제를 마련한다.

태고종은 10월 18일 서울 광화문광장 특설무대에서 ‘제5회 태고종 영산재 및 태고락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영산재는 불교의 전통 의례로 2009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대표적인 불교문화유산이다. 태고종은 매년 영산재를 통해 전통의례의 맥을 잇는 한편, 시민들이 불교문화를 보다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문화행사를 함께 마련해 왔다.

올해 영산재는 오후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진행된다. 태고종은 영산재의 전통 의식과 의미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민족문화유산으로서 영산재가 지닌 가치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어 오후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태고락 페스티벌’이 진행된다. ‘극락도 ROCK이다’를 주제로, 대중음악 공연을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고 전통문화와 현대예술이 함께하는 열린 문화의 장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공연에는 노브레인, 체리필터, 럼블피쉬, 크랙샷 등이 출연해 광화문광장 특설무대를 달굴 예정이다.

임은호 기자

총지종 교도들 “지계 보살행 서원”

9월 29~30일, 총지대화합법회



불교총지종(통리원장 록경 정사)이 교도들의 화합을 다지고 진언행자로서 계를 지키며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할 것을 서원했다.

총지종은 9월 29~30일 단양 소노벨 그랜드볼룸에서 교도 5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총지대화합법회를 봉행했다.

통리원장 록경 정사는 “교도 한 분 한 분의 발걸음이 곧 총지종의 역사이며, 그 마음과 원력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중한 가르침이 되고 있다”며 “세대와 세대를 넘어 서로 존중하고 보듬는 따뜻한 총지종을 만들어 가기를 발원한다”고 말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2026년 임진왜란 의승·의병 합동추모재

『충절의 고장, 영천 – 국난극복의 정신을 다시 새기다』
‘경북의 숨겨진 보물’ 영천시는 동방성리학의 종조 포은 선생의 학풍과 전국 최고 수준의 강학소들이 산재한, 정신문화의 원형을 간직한 도시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영천은 국난 극복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 당시, 경북 10개 지역 의병이 연합해 영천성 수복전투에서 육지 최초 대규모 승리를 이루었고, 은해사 승려 200명도 참여해 공동체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이 전투는 이순신의 명량대첩에 비견되는 역사적 전환점으로, 〈백사별집〉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 구한말 산남의진, 6.25 전쟁의 영천대첩까지, 영천은 두 차례 ‘대첩’을 이룬 국난극복의 상징 도시입니다.
이번 ‘의승 및 의병 합동추모제’는 영천이 지닌 충절과 화합의 정신을 재조명하고,
대한민국의 정신문화적 가치를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일시 2026년 10월 17일(토) 오후 3시
장소 대한불교조계종 은해사 문의 054)355-3318 (종무소)

주최 : 조계종 10교구 은해사 주관 : BTN불교TV 후원 : 경상북도, 영천시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해사